

번역 텍스트의 언어 사용역(Register) 연구

황 세 정
(청주대)

1. 서론

‘Have a nice day’, ‘Good morning!’은 어떻게 번역 되어야 할까?

Nida(1964: 159)는 번역이란 “원천언어(SL) 메시지를 형식적 관점과 의미적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등가물이 되는 목표언어(TL)로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특히 의미적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의사 소통적 관점에서 번역자가 원어의 메시지를 유지하되 목표언어에서 통용되는 언어규칙과 수신자의 해독능력을 고려하여 번역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의 번역은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아침!’보다 ‘하루를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한국어다운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문이 ‘등가’를 이루어야 함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 존재하는 언어를 번역함에 있어 과연 ‘번역의 등가’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방법 설정이 필요하다.

번역 등가의 규모를 결정짓는 것은 의미론적, 문체론적 번역등가에 목표를 둔 번역과정에서 성립된다. 번역가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결과물을 산

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번역가의 언어 조합 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번역가라도 텍스트 고유의 번역등가에 대한 해석과 설정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 제시 방법의 일환으로, 텍스트의 언어 사용역(register)에서 등가를 이루는 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번역 단위를 텍스트로 확대하여 텍스트 전체가 유기적인 관련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언어 사용역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고, 번역 사례를 통하여 번역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언어 사용역을 연구하여 텍스트적 등가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하여 본다. 분석 과정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말뭉치(corpus)’¹⁾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텍스트 유형에서 나타나는 어휘 특성과 빈도를 비교하였다. ‘말뭉치’ 이용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역 차이를 연구하는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번역문은 『주홍글씨』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가 다양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기타 언어 사용역 사례에 맞는 텍스트 적용을 위하여 번역학 논문과 연구 텍스트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번역물 분석 방법은 번역의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언어 사용역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다.

2. 언어 사용역이란?

2.1 언어 사용역의 개념

언어 사용자의 시간적, 물리적, 사회적 내용을 나타내는 표시어들을 언어의 방언 자질(dialects)라고 부르는 반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 메시지의 내용을 밝히고 문맥상의 의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언어 사용역(register)이라고 부

1) 코퍼스(corpus)는 자연적인 텍스트를 광범위하고 균형있게 모은 언어 집합체이다 (Biber: 1998:12). 본 논문에서는 국립국어 연구원의 세종 세종프로젝트에 의거하여 ‘말뭉치’로 용어를 통일한다.

른다(Hatim & Mason 1990: 46). Gregory는 다음과 같이 언어 사용역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언어 사용역의 등가성을 이루는 것은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비추어진다. 즉, 언어 사용역에 대한 등가성 성립 문제는 번역 가능성 정도를 검증하는데 중요하다. (1980: 466)

번역에서 언어 사용역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광범위한 사회 문화, 상황이 접한 테두리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하여 주기 때문이다. 번역가들은 이러한 기준점을 고려하여 언어 변이들을 판단하고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다.

물론 발화가 한 언어 사용역에서 다른 언어 사용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발음, 억양, 또는 어휘나 구문 등에 다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에서 번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번역가가 지닌 사회적 지식, 문화적 역량 따위가 메시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번역가는 수신자 입장에서 ST를 읽으면서 ST에 대한 언어의 다층적 구조를 파악한 후, 발신자 입장에서 TT의 언어 사용역을 제대로 범주화하여야 한다.

2.2 언어 사용역 분류

Halliday는 언어 사용을 다음 <표 1>과 같이 언어 사용과 사용자로 분류하였다(Hatim & Mason 1990: 46).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언어 사용 중심으로 담화 영역, 담화 방법, 담화 경향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번역 텍스트 중심으로 적용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 용(use)	사 용 자(user)
언어역(registers)	방언(dialect)
1. 담화 영역	1. 지역적
2. 담화 방법	2. 시대적
3. 담화 경향	3. 사회적
	4. (비)표준화
	5. 사투리

<표 1> 언어 변화

텍스트에서 어떤 언어 활동이 진행 중에 있을 때 그 언어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혹은 문맥을 **담화영역(field)**이라고 부른다(배영경 1984: 90). 담화 영역은 기호자질(feature of the code)을 선택함으로써 드러나며 기호자질은 텍스트가 하는 역할을 나타낸다(Bell 1995: 190). 즉, 독자는 이 기호자질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What is going on)’를 인지할 수 있으며, ‘기도문’, ‘관광 안내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Gregory와 Carroll(1978)은 이것을 ‘목적적 역할(purposive role)’이라 부르고 이것은 곧 텍스트의 사회적 기능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담화 방법(mode)은 언어 활동의 매개체가 된다. 즉, 담화의 기호를 운반하고 전달하는 의사 소통 수단 통로를 표시하는 자질을 나타낸다. 그 방법으로는 말하기, 쓰기로 크게 구분되며 텍스트로는 전화통화, 에세이, 비즈니스 문서로 나뉘어 질 수 있다. Gregory & Carroll(1978: 49)이 문어 텍스트의 담화 방법을 다시 세분한 방법 중에는 ‘말하기 위한 글’, ‘마치 씌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글’, ‘마치 말하는 것을 듣는 듯한 글’, ‘마치 엿듣는 듯한 글’, ‘읽기 위한 글’ 등이 있다.

담화 경향(tenor)은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과 관련을 갖게되고, 이런 관계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식에 반영된다.

Bell은 담화 경향에 미치는 요소를 형식성, 공손성, 비인칭성, 접근 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3. 번역 텍스트의 언어 사용역

특정언어, 즉, 정치 발언, 광고어, 언론어 등에서는 한 텍스트내에 여러 언어 사용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번역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텍스트에는 원 저자의 언어 사용 방법이 명백히 나타날 뿐 아니라, 텍스트가 다루어지는 영역, 텍스트에 담긴 저자의 의도, 텍스트가 옮겨지는 매체가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언어 사용역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언어 사용역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3.1 담화 영역에 따른 번역

담화 영역은 문맥 속에 나타난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며 화자 혹은 작가의 의도와 글의 목적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자질이다. 이 자질은 품사와 어휘, 단어 수에 의하여 변별되기도 한다. ‘말뭉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텍스트의 담화 영역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 특징을 살펴보자. ‘말뭉치’는 대량의 언어 자료를 전산 분석함으로써 자료 분석이 객관적이고 수치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Johnson(1981)은 LOB Corpus²⁾를 이용하여 담화 영역이 서로 다른 학문적 텍스트(academic text)와 가상 텍스트(fiction text)에서 일어나는 품사별 어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문 텍스트에서는 특정 단어 즉 discussion, argument, result 등의 어휘와 비교급 형용사, 부사의 빈도가 높았으며 장소, 시간의 부사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결과가 산출되었다(Kennedy 1998: 105 재인용). Kennedy가 담화 영역을 분석한 <표 2>의 결과를 살펴보자.

순위	경제 텍스트	일반학문텍스트	순위	경제 텍스트	일반학문텍스트
1	the 22,905	the 23,980	16	this 2,003	they 2,056
2	of 12,710	of 14,951	17	*demand 1,944	on 1,956
3	be 10,686	be 14,021	18	on 1,882	which 1,631
4	a 9,952	and 8,455	19	as 1,831	he 1,590
5	and 8,323	in 8,077	20	they 1,820	not 1,544
6	in 7,010	to 7,867	21	*curve 1,804	or 1,542
7	to 6,502	a 3,400	22	at 1,797	at 1,535
8	that 4,392	that 3,217	23	*firm 1,743	from 1,518
9	*price 3,080	have 3,143	24	*supply 1,590	can 1,242
10	for 2,912	this 3,071	25	*quantity 1,467	we 1,205
11	it 2,674	it 3,060	26	can 1,442	but 1,103
12	we 2,534	for 2,574	27	*margin 1,427	*use 974
13	have 2,514	as 2,351	28	will 1,378	one 922
14	*cost 2,251	by 2,110	29	*economy 1,353	some 894
15	by 2,034	with 2,056	30	from 1,337	there 894

<표 2> 경제 ‘말뭉치’와 일반 학문 ‘말뭉치’ 비교에서 나타난 고빈도 어휘(Kennedy 1998: 101)

- 2) ①BNC(British National Corpus): BE 1억단어, 625만 문장 구축, written; spoken=90:10
 ②LLC(London-Lund Corpus): spoken BE 연구에 적합, 50만 단어 구축
 ③LOB(The Lancaster-Oslo/Bergen Corpus):written BE 연구에 적합, 어휘와 문법의 빈도 비교 연구에 기여, 100만개 단어
 ④Brown Corpus: AE corpus, 1백만 단어 AE와 BE 비교 연구에 적합
 ⑤Birmingham Corpus: 2천만 단어중 spoken English가 15백만 단어

Kennedy는 경제 ‘말뭉치’³⁾와 일반적인 학문 ‘말뭉치’를 비교에서 어휘 빈도 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⁴⁾.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 ‘말뭉치’에서는 내용어가 순위 30위 중에서 9개인 반면, 일반 학문 ‘말뭉치’에서는 단 1개로 나타났다. 이는 Gregory & Carroll이 주장하는 ‘담화 목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텍스트가 경제 기사 담화 영역을 가질 때 내용어를 번역한 예를 살펴본다.

- (1) ST: Since March, stock prices have soared on many world markets, with gains of 20, 30 or even 40 percent from depressed levels in the period before the Iraq war. The rally, which continued Wednesday, has been fuelled by an easing of policymaking and by the lack of attractive alternatives to stocks, analysis say.

TT: 3월 이후 세계 증시 곳곳엔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라크 전쟁의 불황 수준에서 20, 30 심지어 40퍼센트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수요일에도 계속되었던 상승세는 전쟁전의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경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그리고 주식 이외의 다른 매력적인 대안이 부족함으로써, 불이 붙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말뭉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담화 영역에서는 특정 범주의 어휘가 발생한다. 즉, 경제 관련 텍스트를 일반 학문 텍스트와 비교할 때, 특정 범주의 어휘가 우선 발생함으로써 독자는 텍스트의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인다. 위의 텍스트는 경제 관련 기사 중 증시 상승에 대한 담화 영역이 주어지면서 비슷한 어휘의 반복이 일어난다. 따라서 번역가는 텍스트 상황을 증권 시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에 어울리는 담화 영역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텍스트가 지니는 목적을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텍스트와 관련된 담화 영역을 분명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3) Kennedy는 Birmingham corpus의 경제 텍스트와 LOB corpus, Wellington corpus의 일반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였다.

4)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50위까지 고빈도 어휘중 30위까지만 편집하였다. 내용어(content word)는 *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다음 텍스트의 담화 영역이 ‘학교 지각’이라고 제한한 경우 번역가는 좀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

(2)ST: Karen had overslept. If she hurried, she might still make it. Quick, but she'd have to skip breakfast. Run! Almost! She saw the hands of the clock over the entrance move to the penultimate minute and started to run. There were no more seats left. Gasping, she leaned against the swinging door and thought: I hope I don't get caught. (이원표 1992: 266)

‘학교’라는 장소 영역은 ‘seat’를 교실 결상으로, Karen을 ‘잡을 수 (catch)’ 있는 사람은 복도 감시원(hall monitor) 즉, 선생님을 일컬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텍스트의 담화 영역이 ‘역(station)’이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번역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 ‘swing door’는 두 객실 사이의 문이 될 것이며, 잡힐 수 있는(get caught) 상황은 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번역가는 ‘the penultimate minute’ 다음에 ‘표를 살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첨가하여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담화가 갖는 영역에 따라 번역에서 선택되는 어휘가 일련의 연어를 형성하는 번역 전략을 택하게 된다.

이렇게 담화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경우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 (3)을 살펴본다.

(3) ST: There was fire in her and throughout her: she seemed the unpremeditated offshoot of a passionate moment.(The Scarlet Letter 1962: 101)

TT 1: 그녀 속에 불이 있었고 그 불은 온 몸으로 퍼졌다. 그녀는 정열적인 순간에 예상하지 않은 열까지 같았다.

TT 2: 온몸에 불길을 지닌 펄은 이를테면 불타는 정열에 사로잡힌 어느 한 순간에 난데없이 생겨난 아이인 성 싶었다. (이장환 역 1984)

TT 3: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활력이 넘쳐 있어서, 정열적인 순간의 뜻하지 않은 사생아인 것만 같았다. (이정기 역 1982)

TT 1은 담화 영역이 고려되지 않은 번역이다. 그러나 (3)의 her와 she가 『주홍글씨』에서 헤스터의 딸로 등장하는 펄이라는 담화 영역을 갖는다면 TT 2

와 TT 3의 번역 결과물이 생긴다. 즉 fire를 불길, 활력으로 offshoot를 난데없이 생겨난 아이, 사생아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의 담화 영역이 크게는 문학 작품, 작가는 필이 태어난 상황 문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말뭉치’ 분석에서 나타난 또 다른 담화 영역 차이는 문장의 길이로 구별되기도 한다. Kucera & Francis(1967), Francis & Kucera(1982)는 Brown Corpus를 이용하여 정보성 텍스트와 상상의 텍스트에 있어서 문장 길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강범모의 ‘말뭉치’ 분석표와 병렬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상위 5위			
한국어		영 어	
장 르	한 문장내의 어절수평균	장 르	한 문장내의 어절수평균
신문1-종합, 경제	22.36	잡지	24.07
신문2-문화, 생활	18.51	학습	22.31
서평	16.88	미문학	21.35
신문3-논설, 칼럼	15.70	종교	21.21
취미/생활	14.58	신문, 논평	21.06
평균	점	평균	점
하위 5위			
한국어		영 어	
장 르	한 문장내의 어절수평균	장 르	한 문장내의 어절수평균
절차적 텍스트	7.96	탐정 추리소설	12.62
동화	8.48	모험 및 서부극	12.75
공문서	8.62	과학 소설	12.94
백과사전	8.88	로맨스 및 연애소설	13.41
대중잡지	9.87	대중소설	12.93
평균	점	평균	점

<표 3>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 길이 평균(음절수) 순위의 한·영 병렬 비교

한국어와 영어 ‘말뭉치’ 어절수 분석 결과를 병렬 비교하여 보면 역시 각 텍스트의 영역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각각에 대한 장르 구분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하기는 어렵

지만, 강범모(2000)의 연구가 Biber의 텍스트 분석 기법을 따른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유사한 장르 비교는 가능하다.

각 텍스트의 문장당 어절수를 분석하자면 한국어는 신문, 서평, 취미/생활 분야, 영어는 잡지, 학습서, 미문학, 종교 등이 문장당 어절수가 길다. 문장당 어절수가 낮은 텍스트는 한국어가 절차적 텍스트, 공문서 등이며, 영어는 소설이 주로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어와 영어가 같은 담화 영역을 갖고 있더라도 어절수에 차이가 있어서 각 언어에 따라 문장 길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담화 영역이 비슷한 부분을 분석하여 보면 한국어의 논설, 칼럼은 문장당 어절수가 15.70, 영어의 논평은 21.06으로 두 언어 사이의 단어 차가 현저하며 전체적으로 상위 5위를 비교할 때 역시, 영어의 평균 어절수 22.00개로 한국어 평균 어절수 17.61보다 문장 길이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대중 잡지는 어절수 평균이 9.87로 영어의 24.07보다 문장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번역가는 이렇게 같은 텍스트 영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여 ST를 TT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장 길이를 ST중심으로 할 것인지, TT중심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3.2 담화 방법에 따른 번역

Gregory & Carroll(1978: 49)의 담화 방법 모형에는 ‘마치 쓰여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기’ 텍스트로 동화를 예로 들었다. (1)은 Jon Scieszka 미국 동화 작가가 쓴 “The true story of the three little pigs”와 이의 한국어 번역본 발췌문이다.

(1) ST: I'm the wolf. Alexander T. Wolf
 You can call me Al.
 I didn't know how this whole Bid Bad Wolf thing got started,
 But it was all wrong
 Maybe it's because of our diet.
 Hey, it's not my fault wolves eat cute little animals like
 bunnies and sheep and pigs.
 That's just the way we are.
 If cheeseburgers were
 cute, folks would probably think you are Big and Bad, too.

TT: 나는 늑대야 이름은 알렉산더 울프.
 그냥 알(AI)이라고 부르기도 해.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아마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긴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늑대가 토끼나 양이나 돼지같이 귀엽고 조그만 동물
 을 먹는 건, 우리 잘못이 아냐.
 원래 우리는 그런 동물을 먹게끔 되어 있거든. 치즈버거를 먹는
 다고 해서 너희를 커다랗고 고약한 사람이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니?

예문 (1)에서 field는 ‘구전동화’이다. 담화 방법은 독자층이 어린이인 만큼 친근한 대화 형식의 독백체로 쓰여졌으며 어미의 처리도 ‘도대체 모르겠어’, ‘-인 것 같아’, ‘-거든’, ‘말이 되니’와 같이 어린이들의 일상언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처리가 되었다(이현경 2002: 142). 이는 텍스트를 읽는 주체가 어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동화의 표현 수단이 언어인 이상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언어선택이 필요하다’(석용원 1993: 53)는 취지에 잘 부합한다.

이러한 주장은 강범모(1999)의 <표 4>의 ‘말뭉치’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하위 5위			상위 5위		
순위	장 르	인자구조특성평균	순위	장 르	인자구조특성평균
1	신문- 종합, 경제	-1.17153	1	만화	1.56878
2	석박사 논문	-1.08624	2	동화	0.28382
3	신문 -문화, 생활	-0.01714	3	소설-역사	0.18673
4	법조문	-0.90489	4	개인편지	0.06990
5	공문서	-0.79815	5	소설-일반	0.01306

<표 4> 1인자 점수 평균 순위 (대화 제외)

강범모는 언어의 인자 구조를 6개로 나누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언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1인자 구조⁵⁾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인칭, 현재, 심리 형용사 등의 언어 요소를 주축으로 하는 ‘제 1인자 구조’⁶⁾의 언어 특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은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위의 표에서 적용된 ‘제1인자 구조’의 특성에 따라 이인칭이나, 현재 의문, 짧은 부정, 감탄, 명령, 심리 형용사 등의 언어적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텍스트는 만화, 동화, 소설, 편지 등의 구어체 형식을 나타내는 텍스트들이다. 반대로 문어체적 성격이 높은 신문, 논문, 법조문은 이러한 언어적 요소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1)의 번역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어체형의 비형식적인 언어 교류 상황에서는 사적인 느낌과 의견을 표현하는 심리 형용사가 많이 쓰여서 일관된 담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도 이와 같은 구어체와 문어체적 성격의 텍스트에 담겨 있는 언어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동화 텍스트의 담화 방법은 ‘말하는 것처럼 쓰기’ 방법과 더불어, 뒤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화자와 청자의 담화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말하는 것처럼 쓴’ 연설문에 적합한 방법을 살펴본다.

(2) ST: In recent years our country has truly been put to the test. Many have lost their jobs. Thousands of young people were unable to find employment .

TT: 최근에 우리나라는 참으로 시험에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했다.

(3) ST: Our country has not had it easy in recent years. Among adults, but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unemployment is high.

TT: 우리나라는 최근에 순탄치 못했다. 성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실업률이 높다.

(4) ST: These last years have been tough, really, tough. So many have lost their jobs! So many young people were never able to get one!

TT: 최근 몇 년은 어려웠다. 정말 어려웠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전혀 얻지 못했다.

- 5) 인자 분석의 목적은 다수의 언어 특성 변수들을 소수의 인자로 구성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텍스트의 언어 공간을 연구하여 텍스트 분석에 활용한다.
- 6) 1인자 구조의 언어 특성 순위, 이인칭, 현재, 의문, 짧은 부정, 감탄, 명령, 문두부사, 청유, 추측, 강조, 약속, 연결-조건, 심리 형용사, 일인칭, 비형식적 조사, 용언류, 조사-목적, 접속사-이유/설명, 체언류, 복합 지문, 한자어, 단어 길이, 조사-소유, 문장 길이

위의 (2)는 다른 예문과 비교하여 다소 격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설문에 적합하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담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4)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과 비격식적이며, 자유로운 문체를 사용하여 연설문을 고려한 담화 방법에서 벗어난다.

‘말하는 것을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번역을 살펴보자.

(5) ST: There's a boy climbing that tree. They are going to fall if he doesn't take care.

TT: 소년들이 저 나무를 오르고 있다. (ø)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질텐데

(5)의 예문은 대명사를 생략함으로써 마치 ‘말하는 것을 듣는 듯한’ 번역을 이루었다. 국어 번역문에서 생략(ellipsis)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이것은 국어가 영어에 비하여 주제화 중심이라는 점과 일맥 상통한다. 이 점은 ‘말하는 것을 듣는 듯한’ 번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5)와 같이 영어 ST와 대비되는 한국어 TT에서는 대명사의 생략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번역의 현장에서 문어체 혹은 구어체 문장이나 발화가 독자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번역 텍스트의 총체적인 상황 의미 맥락과 함께 독자의 지식세계에 있는 담화 방법도 같이 공유하여야 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위에서 분석한 문어체와 구어체의 특징과 ST와 TT의 담화 방법 차이를 인지하고 번역 텍스트의 결속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3.3. 담화 경향에 따른 번역

앞에서 언급한 Bell(1995)이 분류한 네 가지 담화 경향에서, 우선 형식성 면을 살펴본다. Biber(1988)는 ‘말뭉치’를 이용하여 공기(co-occurring)요소를 분석하여 텍스트 유형에 따른 청자와 화자의 관련성, 정보성을 연구하였다(Kennedy 1998:189). Biber는 화자와 청자의 관련성 정도가 높을수록 think, feel, suppose와 같은 사적 동사(private verb)와 더불어, that 생략, 축약 사용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텍스트로는 주로 개인편지, 대화체 문장, 인터뷰를 예로 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 전달이 주목적인 텍스트는 명사화 경향이 강하고 전치사 사용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Biber의 연구는 텍스트의 형식성 정도에

따른 어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에 나타나는 담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표 5 >는 한국어의 텍스트 연구 결과로 강범모가 언어의 특성 변수를 조합한 정준 판별 변수 평균⁷⁾을 이용함으로써 텍스트 장르를 분석한 것이다.

장르	언어 특성	장르	언어 특성
신문1-종합,경제	단어 길이	공문서	심리형용사
법조문	문장 길이	교양/학문-인문	접속사-역접
책머리	긴 부정	개인편지	구접속
신문2-문화,생활	연결-이유/설명	취미/생활	공적소통동사
교양/학문-예술	약속	석박사 논문	연결-역접

<표 5> 강범모의 각 언어 특성 정준판별 결과 (2000: 111-112)

이를 분석하면 신문1-종합/경제는 단어 길이, 법조문은 문장 길이, 책머리 말은 긴 부정, 신문2-문화/생활은 이유/설명을 위한 연결사, 교양/학문-사회는 약속어 등의 언어 요소에 의하여 특성화된다. 즉, 위의 텍스트들은 담화 경향 관점에서 볼 때 공식성과 형식성이 높은 텍스트로서, 번역에서도 위의 분석에서 나타난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영어와 한국어의 ‘말뭉치’를 이용한 담화 경향에 대한 언어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텍스트의 공식성과 형식성을 살리기 위하여 어휘 선택이 필수적이다.

담화 경향에 따른 공손성(politeness)면에서 한국어 특징은 존경어 발달인데, 이는 영어 ST와 차이가 큰 개념이므로 <표 6>을 통하여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은 준비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층위로 구분한 텍스트 유형이다. 이번에는 특히 한국어의 특성인 겸비법을 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이제까지 배제 하였던 구어 텍스트를 순위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텍스트를 조망하고자 한다. 준비법은 한국어의 중요한 요소로 직접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언어외적 상관 관

7) 정준판별 분석이란 p개의 언어 특성 변수 X의 선형 결합으로 Y를 구성하여 그 중에서 가장 장르를 잘 구분하여 줄 수 있는 정준 판별 변수를 적용하여 언어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 특성만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숫자는 생략한다.

계를 드러내는 언어 특성이다. 준비법은 다시 ①선어말 어미 ‘시’가 표시되는 존칭-동사, ②‘께서’, ‘님’, 존칭적 어휘 ‘거동, 심기’ 등 존칭-8)명사, ③드리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등 겸비어 용언 동사, ④나이까, 나이다, 더이까 등 형식적 종결어미로 나누었다. 존칭어에 담긴 요소를 주축으로 한 ‘2 인자 구조’로 된 언어 특성 연구에서(강범모 2000: 74) 특히 한국어는 대화체에서 준비법이 발달되어 있으며, 반면에 신문, 법조문, 공문서는 하위에 머문다.

순위	존칭-동사	평균 출현 빈도	존칭-명사	평균 출현 빈도	겸비어	평균 출현 빈도	형식적 어미	평균 출현 빈도
1	방송대화	36.75	대화-연극	6.12	방송대화	4.00	방송뉴스	49.00
2	전화대화-방송	32.33	일상대화	6.00	한국어대화집	3.18	동화	37.27
3	대화-연극	19.50	방송대화	5.08	전화대화-방송	3.16	중계방송	29.20
4	대화-드라마	14.25	대화-소설	4.20	대화-드라마,영화	2.37	강연/연설	27.76
5	한국어 대화집	13.72	한국어대화집	3.63	강연/연설	2.00	TV다큐멘터리	27.33
11	소설-역사	5.75	강연/연설	1.84	일상대화	0.66	한국어 대화집	10.27
12	개인편지	5.00	소설-역사	1.83	방송뉴스	0.63	개인편지	8.83
13	TV다큐멘터리	4.83	개인편지	1.50	대화-연극	0.62	소설-역사	8.66
14	전기/기행	3.77	학생작문	1.50	소설-역사	0.58	만화	7.30
15	동화	3.18	소설-일반	1.46	소설-일반	0.53	수필/일기	6.76

<표 6> 국어의 사회적 층위(준비법)가 반영된 텍스트 순위 (강범모 1999: 242-249), 중간순위 생략

그러므로 번역가는 방송대화, 뉴스와 같은 담화 영역의 텍스트를 번역할 때 공손성을 높일 것인지, 또한 동화나 소설, 수필은 존칭어, 형식적 어미를 낮추어 번역할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은 『주홍글씨』에서 존칭법을 고려하여 번역한 예 중에서 호칭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자.

(1) ST: "I pray you, good Sir, said he, "who is this woman?- and wherefore is she here set up to public shame?" (The Scarlet Letter: 61)

8) 2 인자 구조는 접속사, 대용용언, 담화 확인 표시, 시간 부사절, 연결 부사 존칭, 접속사, 겸비어, 주저어, 과거완료, 지시사등 주로 대화체에 많이 나타나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TT “여보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며, 또 무슨 이유로 저런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까?” (이선우 역 2001)

(1)에서 good Sir란 호칭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 지칭어는 문장 전체의 높임법 체계와도 서로 호응 관계를 이루므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하 대우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여야한다. 위의 번역은 로저 칠링워스가 군중 속의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담화 영역에서 적정 수준의 존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노형’, ‘여보게’와 같이 존칭 정도를 높거나 낮게 조절할 수 있다.

다음은 비속어를 다루는 과정에서 같은 텍스트이면서 수신자를 달리하는 공손성이 나타나는 번역을 살펴본다.

(2) ST: “She hath good skill at her needle, that's certain,” remarked one of the female spectators; “but did ever a woman, before this brazen hussy, contrive such a way of showing it! Why, gossips, what is it but to laugh in the faces of our godly magistrates, and make a pride out of what they, worthy gentlemen, meant for a punishment?” (The Scarlet Letter: 54)

TT 1: “그 년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구면, 확실히,” 구경나온 여자중의 하나가 소리쳤다. “그러나 이 뻔뻔한 바람둥이말고 누가 저따위로 제 솜씨를 광고하겠소? 제기랄, 저건 경건하신 우리 판사님들을 면전에서 비웃고 저 높은 신사양반들이 벌이라고 내린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무어란 말이요” (시사영어사 편집국 역 1987)

TT 2: “저 여자는 바느질 솜씨 하나는 종단 말이야..”

구경하던 한 여자가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저 여자말고 세상에 또 어떤 여자가 저 따위로 솜씨 자랑을 해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존귀하신 우리 판사님들이 형벌이라고 내리신 것을 오히려 자랑삼으려고 판사님들 앞에서 비웃어 보이는 배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선우 역 2001).

TT 3: “그 년 바느질 솜씨 하나는 그만이군!“ 한 여자가 나서더니 말했다. ” ⊕ 하지만 훌륭한 판사님들이 내린 형벌을 비웃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런데서 솜씨 자랑을 하다니 원, 저건 아무래도 그 형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광찬 역 1997)

이 대화는 『주홍글씨』에서 장터에 구경나온 여자들이 헤스터를 비난하는

모습인데 번역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담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T 1과 TT 3은 'she'와 'gossips'를 비속어로 번역한 반면, TT 2는 she를 '그 여자'로, 'gossips'는 '여러분들'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TT 2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전집 번역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담화 경향 정도를 조절하여, 메시지 전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정서적인 담화를 택한 결과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성과 공손성에 이어 담화의 비인칭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3) ST: The function of the heart is to pump blood through the body.

TT: 심장의 역할은 몸에 혈액을 펌프 작용으로 보내는 것이다. (김정우 엮음, 마스코트의 지음, 1982: 90)

위의 예문은 과학 기술 텍스트로서 증명이 가능한 실험과 관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번역자의 개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객관적으로 번역해야 한다. 학문, 관료, 법률문서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은 독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번역을 살펴보자. '말뭉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학서나 과학 서적이 텍스트에 정보를 더하기 위해 특별한 어휘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문학 작품의 번역에서도 독자의 텍스트 접근성을 돕는 번역 전략이 발생하기도 한다.

(4) ST: for, though the chances of a popular election of caused this former ruler to descend a step or two from the highest rank, he still held an honorable and influential place among the colonial magistracy. (The Scarlet Letter: 100)

TT 1: 보통 선거에서 패배한 탓으로 최고의 지위에서 한 두 발짝 후퇴해 있던 이전의 지사이긴 했지만, 아직도 식민지의 행정관들 사이에는 명예 있는 지위에 앉아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벨링검은 1642년에 낙선하여 1654년까지 재선되지 못했다. 이장은 1645년이 배경이다.) (이정기 역 1982)

TT 2: 총선거라는 국민의 비판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차지했었던 최고 지배자의 지위로부터 두어 단계 지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식민지의 행정에서 지사는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자리였다. (이선우 역 2001)

여기서는 ‘chance’를 ‘패배한 탓으로’, ‘국민의 비판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역사적 상황 문맥을 인지한 번역가가 독자의 정보성을 높여서 접근 가능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번역 방법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T 1은 본문에 ()로 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정보 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번역가는 독자의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면 정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는 Nida & Charles이 주장한 ‘번역문을 읽는 독자층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전략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검토한 언어 사용역은 실제 번역에서 적용되고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다분히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텍스트의 언어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첫째, 담화의 영역에 따라 번역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고, 둘째, 담화의 방법에 따라 텍스트의 문체가 결정되며, 셋째, 담화의 경향을 파악하여 독자에게 주는 형식성과 공손성, 접근성들을 고려하는 정보의 양이 정해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질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텍스트 유형이 결정되며, 그 유형들은 분리, 경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상호 지배적이거나 원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성은 한 저자에게만 종속되거나 독창적인 것으로 분리되지는 않는다. 텍스트는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텍스트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뿐만 아니라, 장르 전체를 규정짓는 일반적이고 적절한 상황에 항상 영향을 받는다. 언어 사용역은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범주화 하여 줌으로써, 텍스트의 목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며, 번역가는 이 언어 사용역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방법으로 ‘말뭉치’ 활용을 시도하였으나, 병렬 ‘말뭉치’가 미비하게 구축되어 있는 현실과 통계 방법의 제한으로 예문이 제한되거나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향후 번역학 연구를 위하여 직접 원하는 자료를 구축하는 문제가 연구 과제로 남았지만, 앞으로 한·영 병렬 ‘말뭉치’ 구축과 활용이 다양하고 풍부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범모. 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범모외. 2000.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문체, 유형』, 서울: 대학사.
- 국립국어연구원. 1993. 『번역 출판물의 오역에 관한 기초적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정우. 1993. 「번역문에 나타난 국어의 모습」, 『국어생활』21호,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7. 마쓰모토 야스히로. 마쓰모토 아이린 저. 1982. 『영어 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 _____. 1999. 「번역 과정과 문맥의 단계」, 『교육 이론과 실천』Vol. 9 No 1, 1999,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효중. 2000. 「번역 등가의 개념과 유형 설정」, 『번역학 연구』(1-2), 서울: 한국번역학회.
- 배영경. 1984. 「영어의 언어사용역」, 『釜山大學校 人文論叢』[Vol. 26. No. 1], 釜山大學校 人文學研究所.
- 석용운. 1993. 『유아 동화의 구연 교육』, 서울: 학연사.
- 시사영어사 편집국. 1987. Hawthorne, Nathanie 저, 『주홍 글씨』, 서울: 시사영어사.
- 이광찬 역. 1997. Hawthorne, Nathanie 저, 『주홍 글씨』, 서울: 한겨레.
- 이선우 역. 2001. Hawthorne, Nathanie 저, 『주홍 글씨』, 서울: 한국 뉴턴.
- 이원표. 1992. 『담화 연구의 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 이장환 역. 1984. Hawthorne, Nathanie 저, 『주홍 글씨』, 서울: 범우사.
- 이정기 역. 1982. Hawthorne, Nathanie 저, 『주홍 글씨』, 서울: 금성 출판사.
- 이현경. 2002. 「독자층이 상이한 텍스트의 register 번역 전략」, 『국제회의 통역

과 번역

- 정문영 역. 1999. 『주홍 글자』,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정호정. 1999. 「언어 구조적 차이와 번역」, 한국 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 대학원, 『논문집』, 제 3권 1호, 127-147.
- 황의방. 1996.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서울: 보림.
- Bell, Roger T. 1995. *Translation and Translat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Biber, Douglas. 1988.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P.
- Biber, Douglas. 1995. *Dimensions of Register Variation: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P.
- Biber, Douglas.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Cambridge UP.
- Brown, Gillian and Yule, Georg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P.
- Catford, J. C.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London: Oxford UP.
- Gregory, M. and Carroll, S. 1978 *Language and Situation; Language Varieties and their Social Contexts*, London: Routledge.
- Gregory, M. J. 1980. "Perspectives on translation", *Firthian Tradition, Meta*, 25(4): 455-66.
- Halliday, M. A. K. 1961a. "Categories of the theory of grammar", *Word*, 17, 24-192.
- Halliday, M.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2: 177-274.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Halliday, M. A. K. and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atim, B. and Ma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Hawthorne, Nathaniel. 1962. *The Scarlet Letter*, Ohio, Ohio State UP.
- Kennedy, G. 1998. *Introduction to Corpus Linguistics*, London: Longman.

Nida, E. A. 1964. *Toward Scien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KCS I

[Abstract]

A Study on 'Register' in Translating Texts

Hwang, Sejung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register' applicable in translating texts through analysing different text types and genres.

Translators need to decide how to produce a natural target text which meets the textual expectations of target readers. So, it is important that an explicit and clear understanding of the textual differences of two languages is a prerequisite for making such adjustments. In order to discuss this problem,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s of 'register' and examines why translation should be considered on it.

First, this study presents the notion of register faced on Halliday's theory, a model of language variation: field of discourse, mode of discourse, tenor of discourse.

Next,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this register, this study shows analysis with random examples following each register. Especially, this is trying to use the corpus based study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 result foun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tentionality lies behind choices made within field, mode and tenor, and affords new perspective for translators' decision. At the same time, the context dimension allows us to consider these variables in the way in which they interact.

Finally, genres and discourse find expression in texts through the textual component of context.

▶ **Key Words:** register, field, mode, tenor, context, corpus